전주대 주정아 교수, ICCT 학회 우수연구상 수상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주정아 교수가 최근 제주에서 열린 2024 ICCT 학회에서 우수연구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연구는 ECO섬유융합연구원의 박용완 박사 및 LG전자 리빙솔루션 사업부의 김민지 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했다.

이에 따르면 주정아 교수 연구팀에서는 의류의 수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때, 의류에 가해지는 힘과 모션을 제어하면 의류의 수축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기존의 모션 방식을 대체하는 6-motion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건조기에 적용해 수축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한편, LG전자(대표 조주완) 의류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례에 대한 포스터 발표 및 신제품 전시회를 선보였다. /장은성 기자

진안중 주지훈, 전국소년체전 레슬링 은메달 획득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레슬링 중등부 39kg 그레코로만형에 출전한 주지훈(진안중 3학년) 학생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주지훈 학생은 이번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선수로 참가하여 결승까지 진출하였으나, 지난 27일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조동빈(창원 명서중) 학생에게 판정패하며 안타깝게도 금메달을 놓쳤다.

하지만, 주지훈 학생은 올해 3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에서 열린 회장기 전국대회 중등부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앞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먼저 은메달을 획득한 주지훈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메달 획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선수 가족들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어린 나이이므로 부상 없이 운동하여 더욱 좋은 성적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시니어 요리 교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노년사회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시니어 요리교실'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시니어 요리 교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농산물 및 식재료를 이용한 건강 간편식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주방기구 이용법, 신선한 식재료 선택 및 보관법 등 이론과 실습이 병행 진행되고 있다.

교실에 참여 중인 어르신은 "쉽게 접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만들기가 아니라 딸기찹쌀떡, 계란빵, 밥 핫도그, 에그샌드위치 등 손주들에게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먹거리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관 김수진 담당은 "은퇴 이후 자칫 무기력해질 수 있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순 요리 교육을 뛰어넘어 동년배 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참여 어르신들이 요리하며 성취감도 느끼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형성하는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자동 혈액점도검사장비 미국 FDA 등록

이동환 전북대 교수 개발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진입 쾌거 · K-의료기기 수출 '기대'

전북대학교 이동환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부)가 교수 기술창업으로 개발한 의료기기인 '전자동 혈액점도검사장비'가 미국 FDA에 등록허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교수는 교수 기술창업으로 (주)바이오리올로직스를 창업해 지난 2010년부터 혈액점도 측정을 위한 의료기기를 개발, 심혈관·뇌혈관 및 말초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의 마커로 활용돼 왔다.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 혈액점도 검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교수는 간편하고 검사량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전자동 혈액점도검사장비를 개발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유일한 전자동 다채널 혈액점도검사기로써 한국식품의약안전처(KFDA)의 허가 후 한국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됐다. 최근에는 미국 FDA에 등록 허가돼 글로벌시장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장비가 미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이동환 교수는 K-의료기기 수출길이 열렸다.

이 교수는 "이번 미국 시장 진출로 순환기계인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으로 고통 받는 전 세계 환자들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마커로 활용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며 "미국 FDA에 등록 허가로 수출에 따른 매출도 기대되기 때문에 향후 기업공개(IPO)로 이어지는 모델을 만들어 유니콘 기업의 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교수 기술창업으로 만들어진 (주)바이오리올로직스는 현재 전자동 다채널 혈액점도검사 장비를 국내 대형 혈액검사 수탁기관, 전국 대학병원 및 건강검진센터에 설치하는 등 우리지역의 바이오산업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서울 중구, 주민자치위원회 우호교류 협약 체결

부안군 주민자치위원회와 서울 중구 주민자치위원회가 양 지역의 상호 교류와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8일 변산 소노벨 리조트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부안군 주민자치협의회 이명숙회장, 중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안용덕 회장을 비롯한 양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석해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식은 부안의 1개 읍과 중구의 3개 동 및 부안의 1개 면과 중구의 1개 동이 서로 상호 결연 협약을 진행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 문화, 교육,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안용덕 중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은 "서울 중구와 부안의 서로 다른 환경은 오히려 양 지역의 협력과 교류에 이점이 된다"며 "양 지역의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공동 발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숙 부안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서로 다른 환경 속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나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 지역 내 모범 부부 6쌍 선정 · 시상

무주군은 가정의 달 부부의 날을 기념해 지역 내 모범 부부 6쌍을 선정, 29일 군청(군수실)에서 시상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모범 부부 표창은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상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의 영예는 무주읍 라영채·이복순 씨 부부(결혼 53년 차), 무풍면 하청수·홍복순 씨 부부(결혼 51년 차), 설천면 박희승·김홍순 씨 부부(결혼 54년 차), 적상면 양동영·박정순 씨 부부(결혼 37년 차), 안성면 김인선, 김금자 씨 부부(결혼 52년 차), 부남면 정용환·전해순 씨 부부(결혼 50년 차)에게로 돌아갔다.

무주읍 라영채·이복순 씨 부부는 "세상 그 어떤 상보다도 자랑스럽다"라며 "사랑과 배려, 믿음으로 지켜온 부부의 연이 건강한 가정을 결실로 맺어 자식들과 이웃들의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결국 무주,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가정이 행복한 무주, 가족들이 활짝 웃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운봉읍 지사협,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 추진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은주, 민간위원장 장수호)는 29일, 5월 가정의 달 신규 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운봉읍 협의체에서 지역 주민의 정기기부 및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둔 사업비를 배분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자녀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 등을 우선 선정, 선풍기, 이불, 전기 쿠커 등 여름용품(4백만원 상당)을 취약계층 86가구에 지원하였다.

한 어르신은 "작년에 사용하던 선풍기가 고장 나서 걱정했었는데, 필요한 물건을 선물로 받으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동,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지난 29일, 현업업무종사자 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절차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해 강조했으며, 안전보건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함께 진행, 다양한 산업재해에 대해 인식을 제고시켰다.

한 참여 근로자는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며 "안전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도통동장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농어촌공, 재난 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는 29일 상서면 감교리에 위치한 개암저수지에서 저수지 제당 붕괴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2024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부안지사 긴급 대응반과 부안군청 관계자 2명, 부안경찰서 관계자 3명, 부안소방서 119구급대원 3명, 민은건설 (긴급)동원업체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진(자연재난)으로 인한 저수지 제당 외부사면이 일부 유실되는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지역주민 대피, 제당 응급복구 등 상황별 위기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김완중 지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스마트 관광도시 시민홍보단 발대식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지난 25일 한국관광공사 스마트 관광도시 시민홍보단 1기(이하 홍보단) 발대식이 열렸다.

홍보단은 대학생, 중장년층, 여행 분야 인플루언서 등 구성, 11월까지 활동하며, 9개의 스마트 관광도시(남원, 인천, 수원, 양양, 청주, 여수, 대구, 경주, 울산)를 홍보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홍보단 활동 안내 △스마트루나 체험 △가상피팅 및 한복체험 △흥얼버스킹 및 광한루원 체험 △스마트 관광도시 체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취재 및 SNS 콘텐츠 제작을 수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사매면, 본청 관광과 · 축산과 농가 일손돕기

남원시 사매면(면장 김종선)은 지난 28일, 본청 관광과, 축산과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이날 직원 20여명은 이날 농가의 지도 아래 호박, 비트 모종을 심고 고추 순 따기 및 하우스 환경정비 작업으로 마무리하며 최선을 다했으며, 해당 농가는 "모내기 시기와 파종 시기가 겹쳐 지역에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 시기를 놓칠까 걱정이 많았는데, 적기에 일손을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NH농협 순창군지부, 양지천 꽃잔디 조성 동참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임직원 10여명과 함께 양지천 명품 꽃잔디 조성을 위한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꽃잔디 조성 동참은 순창군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경천·양지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양지천 꽃잔디 조성에 지역 사회단체가 함께하여 경천·양지천의 기적 만들기에 동참코자 자발적으로 꽃잔디 관리의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 하였다.

이병희 지부장은 "군 역점사업인 양지천·경천 명품하천 조성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였다"고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